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루게 제24881호] 주제104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백두산총대로 펼쳐나가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레식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레식이 12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은 우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투대로 꾸려주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갈 인민군 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의지로 뭉쳐나가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우고있다.

주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그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다.

레식에는 황병사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

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 일흔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을 우리 당과 조국적사투를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내주신 현하시어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방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근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단장전승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당면한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데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용성변영의 시대를 안아오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적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혁명령도의 대배과전시인 대원수님들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

하늘땅이 열백만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백두산혈통만을 억척같이 받들고 전사보위하는 대들보, 무쇠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으로 총돌격전을 벌여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결사관철하며 3대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감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백만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명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장병들이 당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건설의 전략적선언이며 총적목표인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5대교양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군에 백두산혈통열풍,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모든 훈련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술사상과 주체전법, 부대, 구분대들의 전투임무,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가장 극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하여 올해를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싸움준비완성에서 변이 나는 해로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강철같은 군기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전모를 철저히 확립하며 후방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군인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대대,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와 프락과 잇닿아 있는 병사들의 정은 고향마을, 고향집으로 꾸러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전속도를 따라 돌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가슴에 안고 수령의 유언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며 중요대사건과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애국충정과 일당백의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우호증7면대정호쟁위원들과 군위부대는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투대로 꾸려주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갈 인민군 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의지로 뭉쳐나가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우고있다.

주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그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다.

레식에는 황병사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

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 일흔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을 우리 당과 조국적사투를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내주신 현하시어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방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근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단장전승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당면한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데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용성변영의 시대를 안아오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적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혁명령도의 대배과전시인 대원수님들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

하늘땅이 열백만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백두산혈통만을 억척같이 받들고 전사보위하는 대들보, 무쇠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으로 총돌격전을 벌여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결사관철하며 3대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감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백만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명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장병들이 당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건설의 전략적선언이며 총적목표인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5대교양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군에 백두산혈통열풍,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모든 훈련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술사상과 주체전법, 부대, 구분대들의 전투임무,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가장 극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하여 올해를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싸움준비완성에서 변이 나는 해로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강철같은 군기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전모를 철저히 확립하며 후방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군인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대대,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와 프락과 잇닿아 있는 병사들의 정은 고향마을, 고향집으로 꾸러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전속도를 따라 돌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가슴에 안고 수령의 유언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며 중요대사건과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애국충정과 일당백의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우호증7면대정호쟁위원들과 군위부대는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투대로 꾸려주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갈 인민군 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의지로 뭉쳐나가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우고있다.

주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그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다.

레식에는 황병사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

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 일흔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을 우리 당과 조국적사투를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내주신 현하시어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방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근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단장전승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당면한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데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용성변영의 시대를 안아오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적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투대로 꾸려주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갈 인민군 장병들의 드높은 혁명적의지로 뭉쳐나가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우고있다.

주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으며 그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다.

레식에는 황병사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사동지

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 일흔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을 우리 당과 조국적사투를 특기할 혁명적대장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내주신 현하시어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일방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근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단장전승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당면한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데 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선군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용성변영의 시대를 안아오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적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혁명령도의 대배과전시인 대원수님들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

하늘땅이 열백만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백두산혈통만을 억척같이 받들고 전사보위하는 대들보, 무쇠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으로 총돌격전을 벌여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목표와 3대과업을 결사관철하며 3대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감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백만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명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장병들이 당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건설의 전략적선언이며 총적목표인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5대교양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군에 백두산혈통열풍,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모든 훈련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술사상과 주체전법, 부대, 구분대들의 전투임무,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가장 극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하여 올해를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싸움준비완성에서 변이 나는 해로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강철같은 군기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전모를 철저히 확립하며 후방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군인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대대,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와 프락과 잇닿아 있는 병사들의 정은 고향마을, 고향집으로 꾸러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전속도를 따라 돌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가슴에 안고 수령의 유언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며 중요대사건과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애국충정과 일당백의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겠습니다.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제6권 출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결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 이시다.

제21장 《조국건설》에는 《세 조국건설의 리정표》, 《동북으로 떠나보내신 항일의 전수들》, 《세 전수로 파견된 투사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령도하시신 나날에 대한 감동깊은 일화들이 서술되어 있다.

《〈김일성 평씨 산부대 정치위원입니다〉》, 《공장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 《만경대방문을 뒤로 미루신 사연》 등은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끄신 정치위원의 한없이 겸허하신 인민적품모를 보여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건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조국건설업무를 하신 후에야 겨우 겨우도 그림던 고향 만경대를 찾으며 일가분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신 이야기를 《력사적인 1945년 10월 10일》, 《금수산산을 전감시킨 환오성》, 《〈이게 꿈이냐 생시냐?〉》

를 비롯한 일화들이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제22장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에는 해방된 조선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내용을 담은 일화들인 《출발의 길》, 《새 나라를 세우기》, 《3.7계와 《대동단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인민의 세상이다》, 《결정적인 총합대항성구상》을 비롯한 일화들에는 봉건적질곡과 일제의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책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민족재생의 위대한 인민의 업적이 서술되어 있다.

제23장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자》에는 《현저한 정세로 인민평화원력전》, 《철도부대의 창설》, 《민경대 대장이 반이 안은 새 임무》를 비롯하여 해방 후 정무부력건설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건군의 어머니의 불멸의 선군업적을 전하는 일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지적체와 삼중총학교》, 《개우쳐주시는 사들의 사명》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보건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내용을 담고 있다.

제24장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기충양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 도록 하신 사실을 전하는 일화들인 《분과주의에 올린 경중》, 《당은 당원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련소부구의 비결》 등이 편찬되어 있다.

《강선의 첫 쇠들》, 《새롭게 변모된 남포항》 등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저한 성과를 올린 업적이 이어가시며 일제가 혹독하게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을 하루빨리 복구하도록 중증을 불러일으킨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도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훌륭한 교과서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원회들과 청년동맹군에게 수여되었다. 수여식이 1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청년영예상과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8개의 초급청년동맹원회와 26명의 청년동맹원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결출한 수령 태양절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 이슬란드, 로르니아, 나이지리아에서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사진 및 도서전람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 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판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전출취위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만민평면대성발전당 양근지역위원회 집행위원 린 린 모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 수령님과 인민은 영원히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 검덕 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0(1961)년 4월
주제 77(1988)년 9월



함주군 조양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할머니에게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8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인 진응원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10월



개천군 외서협동농장 여성뜨락또르운전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2(1973)년 11월



연안군 오현리 피살자가족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1(1962)년 1월



유자녀들을 따사로온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0(1961)년 5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1월



수도건설에 참가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작업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6(1957)년 6월



강서군 태성리 농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6(1957)년 8월



남청진에 새로 지은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9(1980)년 7월

세기를 이어 누리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명명후 세계적으로 90여차의 축전, 전시회 개최, 김일성화에 국제적인 박람회, 전시회들에서 8차례 최고상 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50년이 되었다.

세기의 그 어느 꽃에도 비길수 없이 불수루 생기롭고 우아함을 주는 매혹적인 꽃 김일성화는 주체의 광휘로운 빛깔로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진보적인민들이 삼가 드린 최상의 영광과 칭송의 영원한 상징이다.

세계화초배력사상 처음으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는 지난 50년간 나라의 지경을 벗어남지 않았고 흐르는 태양의 빛과 더불어 온 누리에 아름다운 빛을 뿌려왔다.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에서 90여차에 걸쳐 김일성화축전, 전시회가 진행되어 세계를 태양칭송의 열기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를 비롯한 세계의 각계 인사들과 원예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린 국제적인 박람회, 전시회들에서 태양의 꽃은 8차례나 최고상을 수여받아 세계최고의 명화로서의 존엄을 과시하였다.

열대식물인 김일성화가 사계절 조선의 각지에서, 유럽과 대양건너 아메리카대륙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피어남이 경이적인 사실은 인류문명사와 세계화초계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시대와 인류의 지향과 넘은, 지성에 떠받들려 태양의 꽃이 온 누리에 만발하고있는 것은 사상과 정경, 인종과 민족, 지역과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심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강렬해지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입니다.》

김일성화는 아버지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공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초대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의 발기에 의해 명명되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주제54(1965)년 4월 13일 《인도네시아꽃발》으로 소문난

보고식물원을 찾은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식물학자가 새로 육종한 류달리 아름다운 꽃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려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최상의 영광을 드려려는 이 나라 국가수반과 인도네시아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숭고한 감정의 토로였다.

김일성화가 세상에 태어난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민들의 애호와 신뢰의 표시였고 순결하고도 열렬한 존경과 칭송의 찬가였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난 김일성화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시켜 대대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미주시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김일성화원종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현대적인 김일성화원실과 조직배양실이 꾸려졌으므로 태양의 꽃에 대한 연구와 재배보급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김일성화명명 40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가 발표된것은 위인칭송의 꽃 김일성화를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는데서 역사적계기로 되었다.

태양의 꽃을 피워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의속에 각지에서 김일성화원실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태양의 꽃재배와 보급발전의 중심지인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이 일어났다.

조직배양실과 컴퓨터조종체계를 갖춘 천수백㎡의 재배온실과 1만 4000여㎡의 전시관에서는 해마다 많은 꽃모를 생산하여 전국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보급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정에 의해 이 땅우에 수령영생업의 새 력사가 개척되며 주제84(1995)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화전시회는 태양의 꽃축전의 시련으로 되었다.

1999년 제1차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국가적기념일을 맞으며

16차례의 김일성화축전과 8차례의 전시회가 열렸다.

2007년에 이르러 축전과 전시회들에 전시된 김일성화는 모두 6만여상에 달하였으며 참가단위수는 630여개, 관람자수는 391만여명에 달하였다.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에서는 1차 축전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마련한 수백상의 김일성화를 전시하여 축전장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2009년 제11차 김일성화축전에는 19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와 네덜, 몽골,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일본, 튀니지, 단마르크, 베루 등 30여개 나라 친선단체들과 외국의 빛들의 명의로 된 수많은 김일성화가 전시되어 축전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아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열네번째로 열린 김일성화축전에는 축전사상 가장 많은 2만 7600여상이 전시되어 세인을 경탄시켰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속에 제16차 김일성화축전에는 100여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단체들과 개별인사들, 해외동포들의 명의로 된 수많은 불멸의 꽃이 전시되었다.

김일성화재배보급과 축전, 전시회와 더불어 화려한 력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이 꽃피어나는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온 긍지 높은 나날이었다.

절세위인에 대한 애호와 흠모가 온 행성에 깔렸던 때부터는 속이 김일성화의 재배보급이 국제적단위에서 활발해졌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이 되는 1982년 4월 수카르노대통령의 아들에 의해 김일성화가 국제판과계통의 학회에 정식 학명으로 등록됨으로써 세계가 공인하는 명화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만민이 사랑하고 칭송하는 꽃 김일성화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재배되고있다.

기대에서 열린 20여차례의 김일성화전시회에는 온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영연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절세위인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흠모심이 력력히 비껴갔다.

태양의 꽃 수천상을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2007년부터 김일성화전시회를 진행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다양 국가, 과학연구기관들이 태양의 꽃재배와 보급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 기네에서는 2009년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화은실이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히 개관되며 이어 김일성화전시회가 20여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둔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위원회와 아메리카김정일화김정일화협회, 기네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인도네시아 김일성화연구소가 결성되었다.

재중동포들과 중국인민들속에서 태양의 존함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김일성화의 재배보급사업과 전시회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위인칭송의 꽃을 활짝 피운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빛들은 김일성화전시회들을 앞을 다투어 열었다.

2012년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화축전과 때를 같이 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도 전례없는 규모에서 태양의 꽃전시회가 펼쳐져 만사람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태양절경축 김일성화전시회에서는 활짝 핀 꽃바다를 펼쳐졌으며 말리와 세갈, 시에라레온, 코트디보아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열린 김일성화축전 100돐경축 시아프리카지역 김일성화전시회도 전례아프리카인민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든 김일성화대학에서 개막된 태양절경축 중국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은 대륙과 단종의 전시회장들에도 천출위인들을 우러르는 흠모의 대화가 물결쳤다.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전시된 제14차 중국국제화초 및 원예전람회장은 많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꽃들과 더불어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라는 철리듬을 깊이 새겨주었다.

세계가 《김일성화의 출현은 20세기 원예사에 특기할 사변》, 《세상에 들도

없는 꽃》, 《국제화초중에서 명성이 제일 높은 꽃》, 《세계적인 명화》, 《진귀한 꽃》이라고 격찬하는 속에 김일성화는 세계원예박람회와 전시회들에서 최고상을 수여받았다.

2006년 세계 20여개 나라의 원예 및 화초전문조직, 단체들에서 재배육종한 수많은 화초들과 판상용식물들이 전시된 세계원예박람회에서는 김일성화에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되었다.

진귀하고 아름다운 김일성화에 매혹되어 련일 성황을 이룬 조선전시대를 참관한 수는 1000여명에 달하였다.

우리 나라와 타이, 일본, 스웨리에, 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단위가 참가한 2011기네세계원예박람회에서는 김일성화에 국제판꽃경축최고상인 금상, 제7차, 제8차 중국화초박람회에서는 최우수전시품상, 최고전시품상이 수여됨으로써 세계인민들을 감동시켰다.

불멸의 꽃이 《원림도시,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9차 중국(베이징)국제정원박람회와 제8차 중국(상하이)국제꽃박람회,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 등에서 련이어 특별전시상, 특별상, 금상을 수여받은것은 세계적으로 태양품종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아메리카김정일화김정일화협회 회장은 김일성화를 미국의 곳곳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였으며 그 과정에 김일성화의 분류학적위치와 생물학적특성을 서술한 논문들을 내놓음으로써 김일성화재배를 보다 광범히 진행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달백식물원에서는 창립 100돐기념 국제과학토론회장의 중심에 활짝 피어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전시하여 수심기 나라에서 온 수백명의 식물학자들과 베를린시민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들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안고 스위스의 시계제작자들은 여러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된 천원색 꽃시계의 제일 윗부분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피워 울림으로써 만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활짝 피어난 김일성화를 배경으로 활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수정구를 비롯하여 도자공예

《3대장군위인상》, 유리공예 《김일성화의 영원한 빛발》, 액물식수에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러》 등 절세위인들께 삼가 올린 선물물에도 불멸의 꽃들이 부각되었다.

기네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위원장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아메리카대지에 만발할 불멸의 꽃이여!》라고 새긴 돌표식판을 우리 나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 보내어왔다.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위원회 명예회장은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날수 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김정일각하의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자기 수명에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강렬하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일조음악예술포류회 회장은 인자하신 김일성동지의 환하신 미소는 세월이 흘러도 영원할것이다, 태양이 있어 자연의 무궁한 봄이 있듯이 김일성화가 있어 인류의 아름다운 봄은 더욱더 화창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수목학회 회장은 김일성화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일뿐아니라 인류공동의 재보이다, 한생을 식물학계에 바쳐온 나로서는 우주에서 꽃축전이 열린다면 명실공히 천하일품 절세의 명화 김일성화를 출품하고싶다고 마음속전정을 터치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재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불멸의 꽃에 대한 만민의 칭송은 김일성각하아시아말로 위인중의 위인이라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청년 김일성화는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태양민족의 자부심을 안겨주는 선군조선의 국보이며 온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인류공동의 재보이다.

지난 5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가 인류의 지성에 받들려 세기를 이어 세계5대륙 그 어디에서나 활짝 피어나 명화중의 명화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태양조선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는 김정일화와 함께 인류가 낳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더 아름답게 만발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조선의 영원한 봄명절 온 세상에 노래 하자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태양조선의 경사스러운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으며 절세의 위인창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속에 제4차 4월의 봄 인민 예술축전 첫 공연이 12일 평양 시내 극장, 음악당, 회관 등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진군길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으로 경축하는 군대와 인민의 갈락과 환희가 수도의 공연장소들에 차 넘쳤다.

각 도의 예술단 예술인들과 예술선진대원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예술소조원들은 이날의 공연들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광휘로운 빛을 뿌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높은 사상에 승화시키고 약동하는 음악 형상으로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로 밝아온 이 땅, 이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는 위인창가는 수령님을 못이 어 그리는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의 력사로 무궁명영하는 내 조국강산에 영원히 울려갈 종주의 노래, 신념의 노래임을 보여준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 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경북도, 개성시에출단 예술인들이 위인창송의 노래무대를 펼쳐 놓았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와 더불어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수평복이 얼마나 위대하며 천만년 빛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흥운이 얼마나 큰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며 서장 《단경대의 노래》, 《인민은 노래한다 4월의 명절》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그리움의 대하, 축원의 꽃을 결여없이 끊어치르는 만경대를 언제나 안고 사는 인민의 마음을 담아 출연자들은 이 세상 천만목들중에서 만경대의 노래를 축전무대의 첫 종목으로 올렸다.

그들은 녀성민요독창 《수평대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녀성독창 《영원한 그 미소》, 녀성독창과 무용 《결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 등의 종목들에서 태양의 빛발로 이 땅에 평명을 안아오시어 민족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강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언제나 인민을 찾아 조국방방방방곡곡을 찾았으시며 원신의 낮과 밤을 이어 가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아끼며 인민이 부르던 송가 《수령님 밤이 퍼 깊었습니다》는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의 보검으로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김일성조선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 주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녀성독창과 방창 《붉은 철의 배를 띄워주시고 불날의 해빛 같은 미소로 백두산대국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추억깊은 명목들과 함께 어려와 관람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출연자들은 절세 위인의 한평생의業績이 꽃피어나는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영광을 녀성4중창 《봄빛입니다》, 녀성독창과 방창 《행복한 내 나라》에 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화원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려가는 기쁨을 반영한 녀성4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녀성4중창》, 무용 《황금산 총각들과 처녀들》, 녀성독창 《모양산 만목들은 절경이로세》는 공연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김일성민족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환희로운 음악형상으로 펼쳐보인 무대에 가타와 남포3중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이 울려 퍼졌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인민이 누려갈 만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의 정을 드러낸 노래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었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강원도, 남포시에출단 공연이 진행되었다.

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평범한 군인들을 위해 세상에 없는 혁명적전우애의 위대한 세계를 펼쳐주시고 그들의 영생의 삶을 빛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도덕의리를 전하는 단막극 《병사의 사진》은 장배를 무한히 격동시켰다.

단막극 《죽음의 춤》도 혁명의 대, 계급투쟁의 대를 뜻깊이 이어 나가야 할 세대에게 투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작

품인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잡았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중앙회관에서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개성시, 라선시에출선전대,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진대, 청년중앙예술선진대, 동근명당예술선진대공연이 있었다.

4월의 봄빛이 강산에 넘쳐 행복이 꽃피어나 인민은 감사의 정을 안고 만경대 찾아가네의 노래를 높이 울려온 예술선진대원들의 열정과 기백에 넘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절정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윤이상음악당에서 화선선진, 화선선동의 포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을 들었다는 흥겨운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도 수령창송의 노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의 노래로 충만된 축전의 첫 공연무대를 윤이상음악당에서 펼쳤다.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이기위헌을 좌우명으로 삼고 이 인민의 위대한 복무자로 사랑과 헌신의 삶을 빛내여오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혁명생애 영웅을 신장으로 절감하면서 황주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시 이야기와 어은금병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을 감명있게 형상화하였다.

당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대로 단단히 못해 내는 철리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준 기악5중창이야기 《꽃피는 일터》, 독연과 방창 《두 얼굴》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장배가 들썩하게 복제창 《공격전이다》를 펼쳐놓은 화평군목제용가공창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안고 10월의 대축전일을 향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쁨을 분반이 1.4분기 물고기잡이계획을 완수한 자랑을 안고 출현한 신포원양산선진기동소 기동예술선동대의 녀성2중창과 남성방창 《바다 만물가》, 당과 수령을 위한 총정의 향로는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실화이야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여 분에 넘치는 감사까지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던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실화시극 《영원한 태양의 열과 정이여》, 제창이야기 《황금나무 늙나무나무 산에 심었소》, 제창 《정》, 선동과 노래 《내 고향》을 비롯하여 대중의 심장을 뒤흔치는 황금해의 열정과 기백에 넘친 공연을 펼쳐보임으로써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인민문화궁전과 동평양대극장에서 온 나라의 예술자, 예술의 뜻을 받들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온 각지 근로자예술소조원들도 공연무대를 펼쳤다.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태권군 은용협동농장 예술소조들이 공연을 진행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예술소조원들은 대하시 《백두산과 흥남》, 실화 이야기와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민중기악합창 《신고선타령》을 비롯한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명도 업적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가 넘쳐나고 추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혁명신념을 비로산에 새겨가고있는 흥남동동계급의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혼성중창이야기 《약의 나래 우리가 퍼져》, 《승리자로 만남시다》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선군문화가 꽃피운 진정한 인민예술의 참모습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태권군 은용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은 합창 《포전길 걸을 때면》, 《발걸음 노래》, 소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0101 제심니가 그리운 장군님》, 합창시와 합창 《불타는 소원》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내세워 주신 선군시대 본보기농장답게 나라의 쌀독을 채워진 백수님들 다 해가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

열의를 담은 대하시 《장군님과 한드레벌》, 선동곡 《량심의 무게》는 흠뻑새가 나는 구수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창성군과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예술소조원들도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삶을 꽃피워가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동경양대극장의 화려한 무대에 올려 펼쳐놓았다.

창성군 예술소조원들은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신 철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지난날과 또 다르게 천지개벽하는 오늘날의 창성을 민족기악명창 《창성은 좋아》, 가부 《황금산타령》의 흥겨운 민요가락과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예술소조원들도 실화와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대화시 《철세위인들과 우리 야영소》, 제창이야기 《사랑의 꽃수레를 싣네》, 합창시와 합창 《너는 이 땅의 주인이시라》에서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조국의 미래로 내세워 주시며 천만가지 복을 다 안겨 주신 철세위인들의 대대같은 사랑을 격조높이 터뜨렸다.

극이야기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극선동 《잊지 못할 순화의 울음소리》를 비롯하여 인민교양, 반제국교양주체의 작품들도 무대에 올랐다.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과 투쟁기쁨을 분반이 공연 전과정이 새롭게 혁신되면서도 소박하고 진실한 군중예술의 특성을 잘 살린 인민예술축전을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용관철과 새로운 진군속도,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공연은 축전무대의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공연은 세월이 흐를수록 끝없이 울려 퍼지는 위인창송의 송가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을 찬탄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열화같은 노래와 주체혁명영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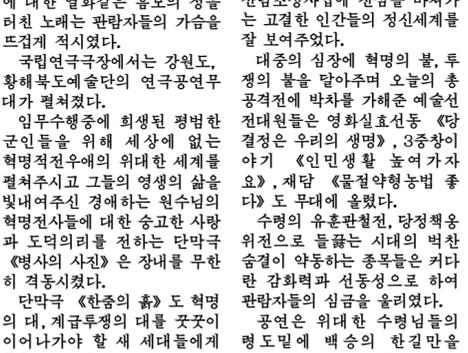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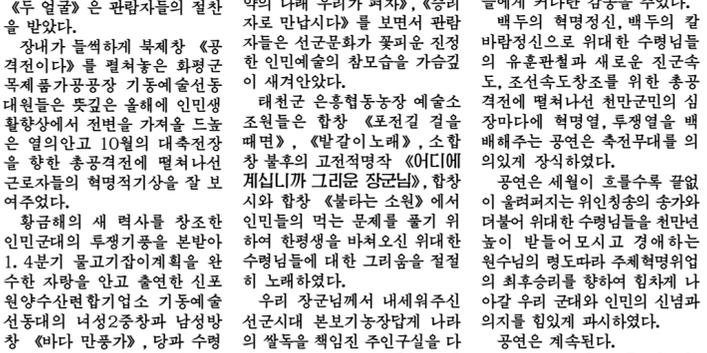
봉 화 예 술 극 장 에서



평 양 대 극 장 에서



청 년 중 앙 회 관 에서



동 평 양 대 극 장 에서

태양절 경축 마라손경기대회와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 진행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민족 최대의 무궁명영을 위한 만민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조국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의 남, 녀 마라손선수 800여명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이 1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자!》라는 구호를 들고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라는 글발이 경기장에

나불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관계부서 일꾼들, 체육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영호체육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열리는 마라손경기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우연하였다.

마라손경기에서는 리영호선수(남자)와 김혜성선수(녀자)가 1등을, 리현호(남자), 김금옥(녀자)선수와 리경범(남자), 신영순(녀자)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태양절경축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에서 온 6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마음을 안고 평양의 거리들을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수도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마라손애호가들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라손경기대회와 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들에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우연하였다.

마라손경기에서는 리영호선수(남자)와 김혜성선수(녀자)가 1등을, 리현호(남자), 김금옥(녀자)선수와 리경범(남자), 신영순(녀자)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태양절경축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에서 온 6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마음을 안고 평양의 거리들을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수도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마라손애호가들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라손경기대회와 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들에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우연하였다.

마라손경기에서는 리영호선수(남자)와 김혜성선수(녀자)가 1등을, 리현호(남자), 김금옥(녀자)선수와 리경범(남자), 신영순(녀자)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태양절경축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에서 온 6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마음을 안고 평양의 거리들을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수도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마라손애호가들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라손경기대회와 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들에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우연하였다.

마라손경기에서는 리영호선수(남자)와 김혜성선수(녀자)가 1등을, 리현호(남자), 김금옥(녀자)선수와 리경범(남자), 신영순(녀자)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태양절경축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에서 온 6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마음을 안고 평양의 거리들을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수도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마라손애호가들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라손경기대회와 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들에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우연하였다.

마라손경기에서는 리영호선수(남자)와 김혜성선수(녀자)가 1등을, 리현호(남자), 김금옥(녀자)선수와 리경범(남자), 신영순(녀자)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태양절경축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에서 온 6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마음을 안고 평양의 거리들을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수도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마라손애호가들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라손경기대회와 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들에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우연하였다.

마라손경기에서는 리영호선수(남자)와 김혜성선수(녀자)가 1등을, 리현호(남자), 김금옥(녀자)선수와 리경범(남자), 신영순(녀자)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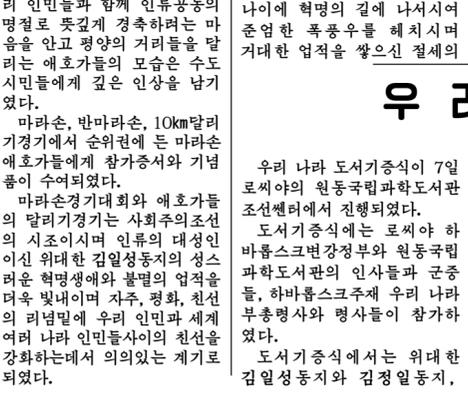
한편 이날 태양절경축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도 있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에서 온 6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 15일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마음을 안고 평양의 거리들을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수도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달리기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마라손애호가들에게 참가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마라손경기대회와 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들에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

태양절경축 마라손경기대회

피에 절은 일본의 죄악의 역사

《대미퍼주기》에 확장한 역적무리

일본의 과거사를 들여다보면 온통 죄악으로 가득차 있다. 일본은 이미 수세기전에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죽이고 대대로 조선민족의 지혜와 땅이 스민 귀중한 모든것들을 차지해대고 마스코 불사르고 빼앗아갔다.

일본침략자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살인행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는가.

우리 민족에게 짐승도 낫을 뽑힐 가장 참혹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저지른 일본사투라이족속들의 죄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인민에게 피맺힌 원한으로 남아 있다.

1592년 4월 13일, 오케 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성오랑개들은 저들의 강도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남쪽관문인 부산에 기여들었다. 오랑개들은 우리 나라에 버려진 말을 들이치는 첫 순간부터 피비린내나는 살륙행위를 시작하였다.

침략자들이 남긴 한 《진중일지》에는 당시의 상황을 대해 《출이 세걸의 횡담을 알을 대우하 죽은 사람이 로인들과 너인들, 개와 고양이 이 이르기까지 다 죽었다.》고 쓰여졌다고 다른 한 기록에는 그

때 자른 사람들의 목이 8500여개였다고 지적되어있다. 이것이 임진왜란때 일본침략군이 감행한 첫 학살만행이었다. 이렇듯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었던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야만살육행위였다.

일본오랑개들의 학살만행은 조선봉건정부의 수도였던 서울에서 가장 참혹하게 감행되었다.

5월초 서울에 기여는 침략자들은 1년 2년동안의 강점기간에 수만명의 성안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1593년 4월에는 조선군대의 드센 공격앞에 성을 내놓고 쫓겨가면서 성안의 인민들을 저러다 죽이는 전대미문의 대학살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하던 도체찰사 유성룡은 《정비록》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성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배에 한들도 안되었는데 사람과 말이 여기저기 마구 죽어넘어지고 악귀가 성안에 차려져서 사람들을 온코를 싸쥐고 다쳐서 성안밖에는 백골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의조실록》에는 당시 서울의 참상에 대해 《수도성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알수 없고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면서 울고불고하는 사람들의 참상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적어

져있다. 실지로 성안에는 어디에나 시체가 가득 널려져 그것을 하나하나 옮기지 않고는 밤을 옮겨 질을 세우는 지경이었다.

1593년 6월 일본침략자들은 진주성에서 전쟁기간중 가장 참혹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침략의 피수 도요도미 히메 요시는 성을 기어코 점령하며 주민들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려는 살인명령을 내리고 12만 3000명의 병력을 살륙케 내몰았다. 성안의 조선의병과 판군은 3000명밖에 안되었지만 100여차례나 힘겨운 싸움을 하며 성을 지켰다. 그들은 편일 퍼박는 장미베로 하여 활을 쏘수 없게 되자 칼과 창으로 육박전을 벌려 병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희생적인 싸움을 하였다. 그들은 편일 퍼박는 놈들은 무려 6만명이나 되는 인민들을 남나로 가리지 않고 죽이는데로 죽였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불살라 창고에 넣어놓고 불태워죽였다. 이로 하여 진주성안에는 시체만 널려져있을 뿐 살아있는 사람이란 단 한명도 없었다.

일본침략군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류, 사람의 가족을 쓴 식인종의 무리

였다. 왜놈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 사람의 눈알을 뽑아내고 목을 잘라 세인들의 곤영애 나무를 잘우고 머리를 성원이 매달아놓았다. 이것도 성치가 않아 사람을 잡아먹는 지존체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식인종무리들은 도요도미 히메요시의 명령에 따라 《전투공로》의 증거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구고 나무통에 넣어 일본으로 실어갔다. 지금도 일본 교토시에 존재 하있는 《대미지카》(쿠미유)에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귀가 묻혀있는 장미베로 하여 활을 쏘수 없게 되자 칼과 창으로 육박전을 벌려 병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희생적인 싸움을 하였다. 그들은 편일 퍼박는 놈들은 무려 6만명이나 되는 인민들을 남나로 가리지 않고 죽이는데로 죽였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불살라 창고에 넣어놓고 불태워죽였다. 이로 하여 진주성안에는 시체만 널려져있을 뿐 살아있는 사람이란 단 한명도 없었다.

일본침략군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류, 사람의 가족을 쓴 식인종의 무리

피뢰페당이 미국산 무기구입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피뢰들은 그 무순 《침투지》와 《위협대비》의 간판 밑에 미국으로부터 《헬파이어》미사일 400기와 신형 《메트리오트》미사일 136기를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피뢰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발악하는 저들의 호전적목물을 가라를 심산으로 계속 불어대는 판에 박은 《위협대비》나발에 신물이 난다.

정약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의 미국산 무기구입책동에 대한 열세가 광전되고있는 사실이다. 400기의 《헬파이어》미사일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은 수천만USS에 달한다. 《메트리오트》미사일구입에는 무려 억대규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것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피뢰들은 연간 무기수입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있는데 2009년부터 2013년사이에 무기수입으로 상건의 배를 불려준 돈만도 엄청난 액수를 이룬다고 한다. 현 피뢰당국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미국으로부터 각종 미사일과 집중기, 전술비행선 등 전쟁장비를 구입하는데 수억USS를 소비해왔다. 이에 대해 《세정현편》을 구실로 내는 피뢰들인데 미국산 무기구입에는 어떻게 되여 그렇게 많은 돈을 몰수했 하고있는가.

피뢰들이 상건의 탐욕스러운 아귀에 거침없이 쏟아내는 돈이 과연 언젠가 그 한푼한푼이 다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깎아먹고 악착스럽게 빨아낸 것이 아닌가. 종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확장하여 미국산 무기구입에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돈을 맹목처럼 마구 쏟아붓고 있는 피뢰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치솟는 민족적격분을 자아내는 매국반역적당풍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말이 아니다. 보수당국의 반역정적으로 경제파국이 심화되는 속에 수많은 근로대중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서 몸부림치고있다. 비애에 빠진 나머지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있다. 그로 하여 남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인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다.

하지만 피뢰집권자는 그 무슨 《세정부족》을 운운하며 제입으로 내뱉은 《북지공약》들을 줄줄이 폐기시켜버림으로써 삶의 막바지에서 해매이는 근로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있다. 한편 새군을 끌어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알뜰한 주머니를 박박 긁어내고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책동으로 그들의 보잘것없는 년금마저 동청 잘라먹으려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세정현편》을 구실로 내는 피뢰들인데 미국산 무기구입에는 어떻게 되여 그렇게 많은 돈을 몰수했 하고있는가.

근로대중을 구제할 돈은 귀머거리 염전 한푼 없고 상건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데 쓸 돈은 남아돌아간단 말인가.

피뢰들이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마구 유린하면서 미국산 무기구입에 눈이 벌개 물어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상건의 비위를 맞추며 그에 의지하여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북침총계를 실현하려는것이다. 현 피뢰집권세력이야말로 미국을 등에 업고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며 동족대결에 미쳐달려있는 권력의 역적무리이다.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국을 하네비로 삼고 상건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가미없이 들어주며 《대미퍼주기》에 정신없이 들어치는 피뢰페당의 종미사대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심화시키고 북남대결, 북침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제앙의 화근이라는것이다.

종미에 환장인 된 피뢰페당과 같은 극악한 매국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없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종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달려며 근로대중을 도란에 몰아넣는 피뢰역적페당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하며 파국한 민《정부》투쟁으로 반역무리들을 단호히 심판하여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기세

최근 남조선에서 《세월》호 참사 1년이 되어오는것과 관련된 유가족들과 각계의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피뢰페당이 극악한 살인마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해수 없게 하는 그 무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인민들의 투쟁을 뿔뿔의 돈으로 막아볼 잔피땀에 발상, 보상이준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가자 유가족들과 각계의 분노는 활화산마냥 폭발하고있다.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30일 서울에서 당국의 《시행령안》을 반대규탄하면서 그

제기와 《세월》호선체의 인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체들은 《시행령안》에 따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직무들에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자들이 달라 갖게 된다며 조사활동이 당국의 통제를 피할수 없게 되고 진상규명도 이미전의 범위를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라고 까발리면서 그의 전면폐기를 주장해나섰다. 더욱이 《시행령안》작성과정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청와대와 《세누리당》에 직접 보고한것은 《세월》호참사 《시행령안》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청와대의 통제권, 간섭권이라는것을 보여준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을 반대규탄

남조선의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피뢰당국을 규탄하며 4일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그 틀위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고집하는 피뢰당국에 저주를 퍼부으며 《시행령안》을 들고나온대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진상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비난하였다.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당국이 돈으로 대항하

다들 달라!는 주호를 웨치고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행령안의 수정이 아닌 완전폐기》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6개 단체는 피뢰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의 《시행령안》에 반대하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성원들이 모두 서수이비로 필것이라고 밝혔다.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대안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청와대가 하루빨리 공포하는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하수인들의 고민거리

요즘 청와대제거리들이 《세월》호참사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집권자의 처신문제를 놓고 물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세월》호침몰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16일 사고발생지역인 진라남도 진도와 역삼해수장된 학생들이 살던 경기도 안산시, 출항장소인 인천 등지에서는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여 대규모추모행사가 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뢰집권자측군들에게 큰 걱정이거기 생겼다. 집권자도 마음에 있던없는 추모모임을 벌려놓아야 사건이 1년이 다되도록 해결되지 않은데 대한 민중의 지치는 분노를 조급이라도 녹작할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다.

추모행사장소들마다에서는 분명 살인《정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세차게 폭발할때만 일 거기에 집권자가 나타나면 가족이나 격양된 민심을 더욱 쑥셔놓게 될것은 뻔하다. 그러면 도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피뢰당국을 단죄

남조선의 참어연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피뢰당국을 규탄하여 얼마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피뢰해양수산부가 《세월》호참사특별법과 관련한 그 무슨 《시행령안》이라는것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인민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며 《정부》에서 파견된 판교가 감독, 통제하게 되어있다고 비난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철저히 독립기구라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위원회를 맡기겠다는것은 결국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서 중요한것은 제한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이며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지위를 무력화하고 활동을 《정부》의 인의대로 통제하는 안이라고 단죄하였다.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과 국민은 특별법을 파피하는것을 절대로 보강할수 없지 않다고 성명을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배주의세력이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배주의적책동은 끝이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느 나라를 들어다봐도 미국의 침략과 간섭의 더러운 행적이 남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하지만 반제주자가 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 오늘날 미국은 더이상 자기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할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을 폭로규탄하고 강경대응하는 등 반미기운이 더욱 거세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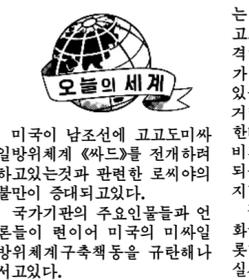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대해 이러저러거꾸로 시비내서고 압력과 위협공갈, 소탕과 음모를 일삼고있는 미국의 전횡이 웅덩 대가들을 치르고있는것이다.

최근년간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에페도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괴판의 탈을 쓴 음모꾼들이 련이어 추방당하고 사시위가 그칠줄 모르고있는 사실은 미국이 더는 라틴아메리카에 발을 붙일수 없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최근에 더욱 첨예하게 조성되고있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사이의 대결국면은 라틴아메리카 대미국사이의 대결의 축소판으로 말로 미국의 세계적패망실현의 필수적요인으로 되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오랜 세월이 걸쳐 라틴아메리카사람들을 지배하는데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군사적침략과 위협공갈, 회유와 기만, 비열한 모략으로 반제주적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미국이 역사적으로 감행한 지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싸드》를 전개하려 하고있다는것과 관련한 로씨야의 불신이 증대되고있다.

국가기관들의 주요인물들과 언론들이 련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규탄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외부성과 국방성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싸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군부대에 《싸드》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있었다. 미군의 고위인물이 토설한 데 의하면 미국은 2011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연습에서 처음으로 《싸드》배치를 가상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피뢰들과 공모협력하여 《싸드》를 남조선배치로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 하는 근본목적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기술적특성만 보아도 《싸드》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싸드》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싸드》를 전개하려 하고있다는것과 관련한 로씨야의 불신이 증대되고있다.

국가기관들의 주요인물들과 언론들이 련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규탄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외부성과 국방성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싸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군부대에 《싸드》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있었다. 미군의 고위인물이 토설한 데 의하면 미국은 2011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연습에서 처음으로 《싸드》배치를 가상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피뢰들과 공모협력하여 《싸드》를 남조선배치로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 하는 근본목적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기술적특성만 보아도 《싸드》

로씨야국방성의 한 인물은 미국이 남조선에 세계최대 미사일방위체계요소를 배치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군사적정체성을 격하시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도는 미국으로부터의 현실적인 군사적위협에 처해있어 대제 해가 할것이다. 이것은 결국 핵 무기가 존재하고있는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씨야 대표는 남조선이 자기 명성에 세계적인 미사일방위체계의 요소들이 나타나는데가 적을 후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여보며 미국의 로씨야미사일들과 람지들을 배치하는것의 특실 판계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싸드》배치를 허용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고는 로씨야의 경고로 된다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모든 사실로 미루어보아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책동에 대한 로씨야의 반발은 더욱 커질것이다.

《싸드》는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패권을 몰아오고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화근이다.

만일 미국이 끝끝내 남조선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무모한 선택을 한다면 제 2의 팽진도 식별할수 없을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사기자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싸드》를 전개하려 하고있다는것과 관련한 로씨야의 불신이 증대되고있다.

국가기관들의 주요인물들과 언론들이 련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규탄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외부성과 국방성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싸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군부대에 《싸드》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있었다. 미군의 고위인물이 토설한 데 의하면 미국은 2011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연습에서 처음으로 《싸드》배치를 가상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피뢰들과 공모협력하여 《싸드》를 남조선배치로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 하는 근본목적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기술적특성만 보아도 《싸드》